

코로나 “거침없다”... 하루 15명꼴 감염

6월 들어 108명 확진... 가족·지인간 n차감염 확산 예산심의 참석 공무원 감염돼 의사일정 잠정 중단

6월 들어 엿새 만에 도내에서 100명 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참석한 제주도청 서기관이 코로나19 확진돼 의회 의사 일정이 중단되고, 공무원과 도의원이 줄줄이 진단 검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13명(1131~1143번)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7명(1144~1150번)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150명으로 늘었으며 이달 들어 108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6월 첫날 14명이 확진된 데 이어 ▷2일 12명 ▷3일 21명 ▷4일 22명 ▷5일 19명 ▷6일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엿새 연속 두자릿수 확진자가 나와 지난 6일을 기점으로 월별 확진자 수 100명을 넘어섰다.

6월 신규 확진자의 93%(101명)가 제주도민이거나 도내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확진자의 68%가 도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지인으로 조사되는 등 일상 생활 속에서의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20%가량은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진단검

사를 받았다.

6~7일 신규 확진자 20명 중 18명은 도민이고, 나머지 2명은 타 지역 거주자이거나 외국인이다.

공직 사회엔 비상이 걸렸다. 확진자 중 1명은 제주도청 서기관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확진 공무원은 지난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날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8일로 잠정 연기했다. 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도의원 8명과 예정위 전문위원실 직원, 실·국장을 포함해 확진 공무원 부서 직원 등 공직자 4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는 8일 오전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초등학교에서도 또다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시 구좌읍 구좌중앙 초등학교 교사 1명이 7일 양성 판정을 받아 해당 교사와 접촉한 학생 8

명을 비롯해 교감과 다른 교사 등 모두 16명이 자가 격리됐다. 앞서 제주시 한림초등학교 학생 3명이 확진돼 이들 학생과 접촉한 80명이 자가 격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전날 양성 판정을 받은 1명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소재 KT 케이비중앙로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 매장에 대한 동선 공개가 이뤄졌다.

도방역당국은 이 기간 KT 케이비중앙로점을 찾은 방문자는 코로나19 증상 발현과 상관 없이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독려했다. 이상민기자



하늘을 나는 즐거움 7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해안가에서 관광객들이 일출봉을 배경으로 카이트서핑을 즐기고 있다. 이상민기자

서귀포영상크리에이터 데뷔작 화제

시, 5편 공식 유튜브에 공개 현장감 더하며 재미·친근감



서귀포시가 올해 첫 운영 중인 영상 크리에이터들의 데뷔작이 최근 화제다. 서귀포시민인 이들은 맘튜브, 스쿠버 유튜브 등으로서, 지상은 물론 물속 곳곳을 앵글에 담아내며 현장감은 물론 재미와 친근감을 더하고 있어 인기다.

7일 시에 따르면 서귀포영상크리에이터 5개팀이 자체 제작·기획해 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 콘텐츠는 ▷성산읍 오소리에서 가족들과 조개 캐기 체험을 그린 '서귀포에서 아이들처럼 뭐하지?' ▷형형색색의 산호 등 신비로운 문양의 바닷속을 그린 '제주바다의 속살, 서귀포 문섬 바닷속 탐험' ▷수국밭과 월평협동조합의 만남을 그린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답답니 수국밭' ▷

서귀포에서만 맛 볼 수 있는 먹방을 그린 '서귀포식 김밥과 라면(사진)' 등이다.

제주 갯벌에서의 마지막 체험 모습을 비롯해 형형색색의 연산호, 줄도화등과 달고기의 신경전 등 수심 35m 바닷속 비경을 곁들이며 높은 조화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귀포영상크리에이터는 제주4·3 바로알기 팸투어 현장답사, 서귀포 원도심 투어 '하영올레' 1코스 개장행사 등에도 적극 참여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시민의 관점에서 서귀포시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폐기물 재활용업체 환경오염 특별점검

서귀포시 “점검반 현장조사”

서귀포시는 지역의 폐기물 재활용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폐기물과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장 내 보관기준 및 보관장소 적정 운영 여부, 허가받은 적정 보관량 및 보관기간

준수 사항, 폐기물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 운반 여부, 폐기물재활용 처리 시 환경오염 발생 예방 조치 사항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이나 환경오염 방지조치가 부실한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친구들이 예식장에 안 와도 돼”

예비부부들 코로나 속앓이... “연기, 지인 초청도 부담스러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예비부부들의 한숨이 늘어났다.

지난달 31일부터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식 하객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미 청첩장을 돌렸거나 결혼식장과 피로연장을 예약해 둔 예비부부들은 하객 99명으로 결혼식을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연기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결혼식 특성상 모여있을 수밖에 없고 최근 제주지

역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두 자릿수로 폭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예비부부는 결혼식과 피로연을 아예 연기하거나 결혼식만 예정대로 진행하고 피로연은 훗날을 기약하는 등의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7월 결혼 예정인 김모(33)씨는 “도내 확진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7월에 예정된 결혼식을 미루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급작스럽게 미루는 경우라 업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후 일정을 다시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결혼피로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결혼식을 진행하더라도 친인척이나 친구들을 초청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달 중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양모(31)씨는 “결혼식은 이미 잡혀 강행하지만 친구·지인들에게 부담스러우면 안 와도 좋다는 문자를 돌렸”다며 “친구들이 먼저 말하길 껴

리워할까봐 이 같은 조치를 했다. 결혼식이 코앞인데 너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한 호텔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식장에 99명밖에 입장할 수 없어 연기할 수 없다는 문의가 오기도 했지만 대다수분들이 일정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예약률이 160여건에서 140여건 정도로 15%가량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진행된 혼인건수는 43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58건 대비 21.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통계청이 월별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적은 혼인 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공항 백지화 선언하라”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7일 세종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제2공항 건설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제2공항 반대였지만 정작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4개월째 직무를 유기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도민 의견 수렴 존중’이라는 정부와 도

민사회의 공식적인 합의를 국토부는 공공연한 태만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지금 당장 국토부가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을 하도록 곧바로 2차 당·정 협의를 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민회의는 또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을 향해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을 용인하고 환경부가 부동의 해주기만 기다려선 안 된다”면서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을 정부에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DO NOT TAKE THE MARKETING, LEAVE IT TO THE ILOWA

말지 말고 말기세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순간

주식회사 일로와는 기획·마케팅시 불편함을 경쟁력 있는 기업, 기관에게
도내 청년기업 및 1인 프리랜서와의 연결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T. 064. 727. 0521 E. ilowa@ilowa.kr In. @ilowajeju

